

사진부 칼럼



몇 년 전, 쌀쌀했던 날 정문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대한문화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을 향해 뛰어왔다. 그는 곧 자신이 들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소녀상에 둘렀다. 소녀상에는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면 마스크가, 추운 겨울이 되면 담요, 털모자, 장갑이 둘러져 있다. 요즘에는 누군가 명언을 손수 적은 종이를 붙여두는데, 에이브러햄 링컨에 이어 지난해에는 그레이스 한센의 "Don't be afraid your life will end; be afraid that it will never begin,"이 적혀 있었다. 소녀상은 전쟁 성폭력이라는 무형의 트라우마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행동하게 하는 매개체다. 그리고 이 기억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칠 힘을 부여한다. 한 유튜브가 광복절을 맞아 3D펜으로 소녀상을 제작한 것을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감명 깊게 여긴 이유, 일본 우익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모두 이 때문일까.

이화선 사진부 부장기자

여론광장

존엄에 대하여

"나는 동물권을 이해 못 하겠어."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말이다. 이유인즉슨, 누구나 언제든 될 수 있는 '장애안'과는 다르게, 자신이 동물이 될 수는 없어서 공감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금 인권도 다 안 지켜지는 마당에 무슨 동물권을 논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자신은 동물도 존엄한 줄 모르겠지만 인간도 존엄한 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는 생각했다. '저 아이에게 뇌 같은 건 없는 걸까?' 그리고는 다시 생각했다. '그러게, 생명은 왜 존엄하지?' 초등학교 때, 마치 세뇌 당하듯이 들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에 의문이 들었다. 인간의, 나아가 모든 생명의 생득적인 존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상 지구상, 우주상의 모든 생명체는 아무 의도 없이 던져진 존재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생명의 존엄함은 순전히 인간의 '뇌피셜'인데, 이는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간 존엄의 역사를 살펴해보았다. 고대 그리스 시대만 해도 인간

의 생득적인 존엄함 같은 것은 없었다. 그 시대의 존엄은 명예, 지위, 탁월함 등과 호환되는 말이었다고, 결국 권력과 부를 가진 귀족 계층만이 점유했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부의 인간들만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던 존엄이 인간 전체에 확대된 것은 중세 시대가 도래한 후부터였다. 이 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그 이유는 신 때문이었다. 신이 인간에게 존엄성을 주었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근대에는 인간 존엄의 근거가 인간 내부로 향하게 된다. 칸트는 그 근거가 인간만이 가진 이성, 도덕적 자율성 때문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의 발달로 인한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자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누구나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인간 안에 존엄을 발생시키는 생득적이고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태어나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 수단적으로 생성해낸 개념이 바로 존엄의 실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인 존엄을 지켜줘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 역사를 되짚어 오며 보았듯이, 인류는 그간 타자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구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다. 고문, 전쟁, 학대, 노예제, 전체주의, 산업화 등 역사 속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자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해결책들은 비참하리만치 끔찍한 최후로 우리를 이끌었다. 많은 인간이 죽고, 다치고,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인간이 아닌 동물과 자연은 설 자리를 잃고 멸종 위기와 환경오염에 허덕이고 있다. 인간의 해결책은 실패했다.

생명의 존엄함은 인간이 수단적으로 만들어낸 개념, 즉 '뇌피셜'이 맞다. 그러나 그동안 타자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아 발생한 수많은 문제와 실패를 경험적으로 되짚어 볼 때, 존엄의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이제 타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공존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자연, 동물, 인간의 존엄함을 모르겠다는 내 친구에게 해줄 말은 딱 하나다.

그동안 뭘 봤나?

유유성(커미·17)

상록탑

추석은 누굴 위한 명절인가요?



배세정 취재부장

“불필요한 관습 버리고 가족 화합의 장으로”

지난주, 추석을 맞이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추석 전이다. 추석을 앞둔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글로 써보고자 한다. 몇몇 행운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이상한 명절 풍경에 대한 얘기다.

매년 추석이면 외할머니댁에 간다. 추석 전날 가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동태전, 고추전, 새우튀김 등을 부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와 나는 고추의 속을 채우는 역할을 맡았다. 갖 부친 따끈따끈한 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손이 아무지 못하는 나는 추석 전날부터 할머니댁에 가서 요리 돕기를 꺼려했다.

다음날 아침은 할머니께서 열심히 준비한 음식으로 차레를 지낸다. 할아버지와 삼촌이 방에 들어가 차레를 지내면, 엄마와 이모는 밖에서 보고 있다. 그때가 이른 아침이라 누워서 자고 있으면 엄마가 나를 깨운다. "제사 지내는데 왜 자고 있니." 그렇다고 나에게 절하라고 사기진 않는다. 제사 지내는 동안 나는 밀푼밀푼 앉아있다. 어느 날은 엄마에게 모른 척 물었다. "엄마는 왜 안 들어가?" 그러자 엄마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出嫁外人)이야"라고 답했다.

추석 당일엔 친척이 모두 모인다. 이모와 이모부, 친척동생까지 전부. 저녁 메뉴는 항상 같다. 갈비찜과 잡채, 전날 부친 전 등이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자 칭찬을 늘어놓았던 한 이모는 설에 '이제 이런 것도 해야지'라며 나에게 반찬을 나르게 했다. 같은 해 함께 대학에 입학했던 친척남동생이 될 하고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부엌에 있던 나는 반찬을 나르기 싫어서 소파에 꼭 붙어있었다.

밥상은 거실에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나가 차려진다. 메뉴가 다르진 않지만 보통 남자는 큰 밥상, 여자는 작은 밥상에 둘러앉는다. 각 밥상에 앉은 인원수는 비슷한데 말이다. 이모들과 엄마는 반찬을 만들고 나르느라 밥상에 늦게 앉을 때 다른 밥상은 이미 밥과 함께 술까지 곁들여 드시고 계신다.

밥을 다 먹으면 어른들은 간단한 안주에 술을 마신다. 가끔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할 때가 있는데, 듣는 소리는 뻘하다. "남자친구는 있나?", "졸업하고 뭐 할 거냐?", "결혼 잘 해서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이상한 풍경이다. 집안이 텔레비전, 스마트폰, 노트북 등 현대문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관습만은 옛날 관습에 머물러있다. 1년 중 가장 큰 만월(滿月) 아래서 놀고 마시는 추석은 오늘날의 도도 바퀴였다. 풍작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조상께 제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니, 그 의도는 아마 가족 간의 화합 정도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합에 불필요한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 풍경에 대해 '예전부터 그래왔어'라고 말하려면 그 유래를 보라. 추석의 유래라고 하는 신라시대 가배(嘉俳)는 왕녀 두 사람이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두 페로 나누어 겨룬 뒤, 길쌈내기에서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주고 각종 놀이를 한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전은 보통 조선시대지만, 명절의 모습은 이처럼 고대부터 지금까지 달라져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 추석이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인 명절이 아닐길 바란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강강술래나 하고, 편을 갈라 게임해 이긴 편에게 상품이나 주길 바란다. 추석이 진정한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

Z의 시선

무지개 같은 평등을 좇아

우리 세대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흠뻑 적셔진 세 자였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정도로 소중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다. 대한민국에 타고 나는 계급은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배웠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해 성별, 인종, 재산, 장애의 유무, 질병, 나이, 성적 지향 등을 가지고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우리는, 그렇게 교과서도 읽고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면서 자랐다.

그런데 책 밖의 세상은 평등하지 않았다. 어느새가 '수저 계급론'이 등장했다. 수저 계급론은 사회구조의 부조리를 비판하기보다 사회 구성원들을 계급에 따라 나누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그저 교환가치일 뿐만 아니라 마치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계급'처럼 작용한다는 점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 성평등 문제라고 불리는 성 불평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남녀'가 평등하다고 들으면서 자랐는데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불평등은 수도 많고 종류도 많다.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세세하게 불평등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

청년들에게 불평등은 그저 눈살을 찌푸리고 넘어가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병목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한두 문제로 당락이 갈리는 시험을 계속 치른다. 최종합격을 위해 학교에서, 카페에서, 작은 방 안에서 초식동물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잠 잘 시간, 밥 먹을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한다. 그런데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규칙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회를 낚아채 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자 분노를 넘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

는 이들도 생겨났다. 평등을 숨 쉬듯이 익숙하게 여기며 자라온 이들에게,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계가 있다는 것은 불가해한 일이며, 이해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Z세대는 불평등을 타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평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평등한 상황에 익숙해 있다는 반증이다. 평등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인식하며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 현재 청년들의 모습에는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있다. 성차별 논의가 우리 세대에 들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 사이의 평등을 넘어 전 지구의 동식물을 포괄하는 환경권과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Z세대가 받아온 교육을 타상공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행동을 통해 그 내용을 현실로 옮긴다면 Z세대의 책 속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될 것이다. 김정민(사회·17)

금주의 책

어느 언어학자의 문맹 체류기

김백승주 지음, 서울 : 은행나무, 2019



이 책에서 저자는 어떤 사회에서 순도 100퍼센트의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낭만하고는 거리가 먼 엄혹한 현실이지만 매일매일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새로운 디폴트 값을 찾아가는 일이 꽤나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상하이 하다'라는 동사를 몸소 체험한 일화나 가족과의 여행을 통해 '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심오하고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재치 넘치는 언어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때 아시아 최대의 도살장이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바뀐 '라오칭팡'을 해매던 저자가 지중해 크레타의 미궁을 떠돌리고, 로마를 거쳐 1933년의 상하이와 1948년 제주의 아픈 이야기를 담담히 전할 때는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말로 맺음 하는 이 책을 이화인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811.8 백6820]